

扶安 蠓島 新石器時代 貝塚

李永德 (圓光大 馬韓 · 百濟文化研究所)

I

전라북도 부안군의 변산반도에서 서쪽으로 약 12km 떨어진 해상에 위치한다. 위도는 남쪽에 망금봉(해발 241m), 북쪽의 망월봉(해발 255m)을 중심으로 동서해안은 절벽으로 이루어졌으며, 동남해안과 북측은 폭 1km 내외의 갯벌로 이루어졌다.

필자가 위도를 답사하게 된 것은 1999년 1월로 원광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안승모선생님을 비롯하여 6여명의 학생들과 함께 했다. 1박 2일의 일정이었기 때문에 위도 전체를 답사한다는 것은 무리였으며, 갯벌해안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안가의 패총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때 확인된 것은 파장금과 벌금리에서 각각 원삼국시대 패총 1개소이며, 정금도에서는 삼국시대 패총 1개소와 신석기시대 패총 1개소이다.

II

정금도는 위도의 북쪽에 위치하며, 섬 주변 대부분이 갯벌해안으로 이루어졌다. 간조시에는 위도면 벌금리에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다. 현재에도 6~7 가구의 주민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일부 평탄한 지역은 밭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식수원은 지하수를 활용하고 있었으나 위도처럼 풍부한 수량은 아니었다.

정금도에서 패총이 확인된 지점은 현재 밭으로 개간된 곳(정금도 B패총)과 민가 부근(정금도 A패총)으로 2개소이다. 정금도 A패총은 민가부근의 비교적 평탄한 지점에 위치하며, 만조시에는 바닷물과 맞닿는 부분이다. 패총의 많은 부분이 민가의 담장이나 건축잔재물로 덮혀 있었으며, 수습된 토기편은 2